

**全週** 익한자를 칭찬하거나 약한자에게 칭찬받았, 이 두가지 모두 익이 되며, 익으로 거간꾼 노릇하기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뒤에 모두 편한일이 없다.  
(法句經·연어품 6절)

# 東大新聞

발행처	인간	민	별
편집장	김	차	수
편집	국	안	재
편집	국	안	재
발행처	인간	민	별
편집장	김	차	수
편집	국	안	재
편집	국	안	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707(☎41-4132)

◇동국학술문화관(가칭) 건립준비상황을 진단한다

## 동국학술문화관 재원마련 시급 전동국인 차원의 공감대형성으로 이뤄져야

동국학술문화관(가칭) 건립이 예정되었던지보다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의 추진을 요구하고는 학내 여론이 높다.

건립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서울시 '남산 제모습' 찾기 백인위원회와 마찰을 빚은바 있다. 이에 학교당국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를 통과받은후 문화관 신축설계작업에 돌입했다.

학교당국은 지난 6월29일 문화관 계획설계를 현상공모하면서 기본적인 작업에 임했다. 이어 지난 8월말까지 5개사 지명업체에 대한 공모작품 심사를 거쳤다. 심사결과 간삼종합건축사(주)를 당선업체로 선정, 향후 구체적인 작업을 관계과의 구매과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다.

구성된후 공간용도사용인의 환경에 따라 기본설계 및 토목설계가 이뤄져 오는 12월10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12월중으로 토목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실시계획은 93년 6월10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동국인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학내구성원들의 공감대형성이 선행되고 이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부총장등 실처장 일괄사표 총동임회비 관련 도의적 책임

학교당국 김용정(철학) 부총장을 비롯한 각 행정부실처장단이 지난달 29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학기초부터 학교당국·대학원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총동임회비 문제와 관련해 학교행정기구의 부실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후 시기적으로 단기간이 지난시점에서 이뤄져 학내구성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아직까지 사표수리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이 없는 상태여서 이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중앙행정기구 실처장단 사표제출과 관련 행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표제출은 행정업무처리 과정상 나타난 오류에 대한 책임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지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부총장을 비롯 새롭게 구성된 처실장단의 일괄사표제출은 행정기구강화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의 건립 당선업체가 제시한 기획설계 개요를 살펴보면 △면적=17,481㎡(5,287평 단, 유동적)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지상5층, 지하1층(지하층 변경가능) △공간구성=학술동, 연구동, 문화동으로 특히, 문화동은 예술대학 행정 및 실기공간, 총각강,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 △공사비에 예상액=약백여억원 등이다.

이런에 배경된 사학진흥기금 용자금 5억원은 현재 건축중인 경주캠퍼스 기초과학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6일 각단체 정·부회장 임부보자들의 사진촬영중 손서를 기다리는 후보들의 웃는모습에서도 맹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석중 수습기자>

## 경주 제 학생자치기구 선거시작 총학 정·부회장 투표 11월 12일

경주캠퍼스 제 학생자치기구 별 선거관리위원회는 임부보자 등록접수를 오늘(7일)부터 열 개 시작한다.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 = 오는 11월12일 실시된다. 자세한 선거시행세칙은 아직 미 결정 상태다. △총여학생회선거 = 오는 11월11일 실시된다. △총대의원회 정·부위원장선거 = 오는 15일 오후3시 도서관(4층 시청각실)에서 투표한다. 후보자로는 기호1번 이주호(경제3), 박세영(영문3) 조, 기호2번 이종성(야간법3)·인성교(한문3) 조가 각각 등록, 결선한다. △단대 대의원장 선거 = 오는 22일 실시된다. △총아리엔탈회 선관위(위원장=권성훈·경영4) =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28일 오후5시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총업준비위원회 선관위(위원장=최대규·법학4) = 오는 12.1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후 29일 투표를 실시한다. △인문대 학생회 선관위(위원장=박유석·고미사4) = 오는 7. 8일 후보자 등록후 오는 21. 27일 유세를 거쳐 오는 29일 투표를 실시한다. △자연대 학생회 선관위(위원장=정용식·수교4) = 오는 7. 8일 후보자 등록후 29일 현호관(A209)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법정대 학생회 선관위(위원장=구지근·야간법4) = 오는 8일 후보자 등록후 24일 선거를 실시한다. △상경대 학생회 선관위(위원장=김문성·경영4) = 오는 7. 8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후, 29일 선거를 실시한다.

## 학생대표자회의 소집 불투명 총학생회-학생총회 제기로

제25대 총학생선거 3월로 연기 결정된 이후 제 학생자치기구 들간의 공식적인 의사수렴의

장인 총학운영위원회가 오늘(7일) 오전10시 열려 선거연기에 대한 기간의 과정 및 향후방안을 검토 논의했다.

이런에 배경된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여부가 불투명했것은 오히려 이번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하는 오류로 남을 여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수립이 각 단위학생회를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와 학생총회 제기로

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오는 30일까지

**변수**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불행하게도 왕비인 소원왕후 심씨가 죽자 그의 극락왕생을 위해 수양대군을 시켜서 석보상절, 즉 부처님의 일대기를 짓게 했는데 이를 읽어 본 세종은 그 내용에 감탄하여 부처의 공덕을 찬양한 대서 사시를 손수 썼다. 그것이 바로 5백80여 수에 달하는 월인천강지곡(月印天江之曲)이다.

이러한 원인에서 한가위 날에 추는 강강수월래를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이를 전강부회하고 취음(取音)하여 흰색 오랑캐가 물 건너왔다[强羌水越來]고 해석도 하지만, 이는 달이 강강 즉 천강에 와서 비친 것(江江水月來)으로 불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원부(圓舞)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진왜래 때

부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유행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남녀간의 사랑중으로써 불교적인 국가에서는 널리 성행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중국의 일부지방과 이웃 일본에도 전해져서 높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강강수월래를 달총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생들은 무명의 망상때문에 번뇌의 풍파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마음 속에는 어떤 청정한 물질도 나타나지 않지만, 번뇌의 바라가 자서 바닷물이 정정하면 동시에 상해의 경지가 인연(印現) 되어 마치 불자재에는

실존치 않지만 그 성품이 정정하므로 달 모양을 그대로 드러우는데 이를 일월이서 수월유(水月喻)라고 한다. 이것이 또한 해인삼매(海印三昧)이다. 큰 바다가 일체의 사물을 능히 인상(印象)하는 것과 같이 깊고 고요한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가 일체를 인연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를 보면, 연꽃잎 모양의 조각배 위에 선택로 바닷물이 떠서 불속의 달을 지관(止觀)하고 있는 보살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문학연구소 학술회의 '현대 한국문학이론의...' 주제로

한국문학연구소(소장=김경호·국어교육) 주최 제12회 한국문학연구소 학술회의가 '현대 한국문학이론의 반성과 전망'이란 주제로 오는 9일 본교 동국관(L306)에서 열린다. 한국문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개최해 온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문학에 있어 동·서양 혹은 고금을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점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학술회의는 1·2부로 나눠져, 제1부는 채수영(국문

## (주)금강·고려화학·금강종합건설은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에 있어서 정상에 자리한 (주)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은 더욱 더 앞선 기술과 투자를 통해 국내·외에 그 명성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무기질 광자원을 활용하여 보는 단열재, 내외장재 및 판유리, 자동차유리 등 유리산업에 이르기까지 초영역의 극한 물성에 도전하는 - (주)금강, 일반 페인트에서 선박, 자동차 컨테이너, 반도체 봉지재까지 세계 굴지의 화학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며 정밀화학산업을 이끌어가는 - 고려화학(주), 우수한 인적자원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을 추구하는 - 금강종합건설(주)은 이 땅의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식금강** ▲ **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주)**

# “취업과 · 즐준위는 뭐하는 곳이죠?”

## 신속정확한 정보-취업에 대한 투자 부족

복합과 동시에 대다수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취업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런 내가 10월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 졸업준비위원회 취업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이유는 단순히 게으르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졸업사건을 찍으면서 즐준위가 있다는 사실과 몇 차례의 취업특강·기업설명회를 들으면서 경험한 취업과의 막연한 활동을 뿐이다. 이런 짧은 몇 번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취업의 활동과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이 글을 적게 되었다.

즐준위는 과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단지 졸업사건 촬영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닐테데... 다른 학교의 예를 들자면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조

하는 듯하다. 올해 내가 받은 정보라고는 과사무실을 통해 배부받은 취업 가이드 1권, 그리고 동문진출해있는 회사와의 간담회 및 일반기업설명회 등 행사적(?) 측면이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형식 이전에 우리학교의 상황에 알맞은 취업의 내용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과거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듯이 내용의 변화없는 행사들은 결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취업은 4학년년의 일이 아니라,

# 선거연기, 학생들 무시한 일방적처사 한해 학생회사업 평가 어려워

##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란 소설 제목이 문득 떠오르는 날입니다. 제 25대 총학생회 선거 3월 연기 문제를 안고 있는 동학의 현실때문이겠지요. 3월로 선거를 연기하자는 총대의 원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선거는 한해 사업의 평가를 통해 좀 더 나은 다음 학생회를 꾸리기 위한 학우들의 자주적 권리입니다. 이를 3월에 실시했을 때 신입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어찌 신입생들이 제 24대를 울리게 평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25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둘째, 연기배정의 원인 또한 모호합니다. 대선을 위해서라 했는데,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그 이유 때문에 선거 연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진정 학우 중심의 사고를 지녀야 하는 분들에게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는 철저히 불어아 할 것입니다.

셋째, 빈번히 대자보에 오른 총대의원회측의 입장에 대해

# 대자보 분석

## 단과대 학생회 사업 평가

단과대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학내에서는 각 단과 학생회의 지난 학기 사업 평가에 대한 비판의 대자보가 눈에 띄었다.

“이이 91년도에 컴퓨터를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93년도 완공예정인 기초과학관 개관 이후 마련해 주기로 학교측과 합의했음에도 등투의 성과를 인 환불금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야만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또한 “상경대 학생회가 상경대 학생들의 열망인 컴퓨터실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의 중점부처였던 협소한 상경대 컴퓨터실 사용에서부터 변경한 이런 상황은 과 학생회의 요구를 균형있게 맞추어 내지 못한 단과대 학생회와 학교 공정의 부족에서 온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 지도력 미흡-낮은 참여율 지적

보다 발전적인 학생회를 찾기 위한 이런 대자보들 관망정영학과명의 대자보가 학내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제4대 상경대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이 대자보는 한마디로 상경대 학생회의 지난학기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등투가 “각 학생회의 지도력 부족과 학생들의 지도

경학생들의 열망인 컴퓨터실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의 중점부처였던 협소한 상경대 컴퓨터실 사용에서부터 변경한 이런 상황은 과 학생회의 요구를 균형있게 맞추어 내지 못한 단과대 학생회와 학교 공정의 부족에서 온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260-3491~2.

# 학생회비납부 저조...예상의 4분의1 철저한 사업감사 속에서 분배돼야

요즘들어 학생회비 납부의 문제를 골머리 생각해 보게 된다. 2학기 학생회비 납부액이 전체 예상금액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3천만원 정도에 그쳤다.

일반 학생들은 학생회비 납부 저조의 문제성을 인지하기 어렵겠지만, 학생회비를 가지고 직접 단체 사업을 운영해 본 사람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의 참여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이론과대는 2학기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인 명진 학생회 회계를 치무면서 적잖은 빚을 졌다. 이부족분을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메꾸려던 학생회의 생각은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 제반 사업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기간에 벌어들인 학생회의 사업이 학생들의 기대에 처지 못했는지일까?

학우들의 믿음을 얻지 못한 학생회 사업이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의 대안은 학우들에게 불어아 한다.

덧붙여 2학기 학생회비의 분배는 철저한 사업감사와 예산 소주의 책임있는 단위를 꾸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외과 모의국회 '6공청문화' 열어

정치외교학과 모의국회는 올해로 부활8년째를 맞고 있다. 많은 동학학우들에게 이 모의국회를 알리고자 한다.

올해에는, 92년 대선을 맞아 지금 정치학도로서 패배할 수 없는 ‘대선’의 주제를 다루어 나가자 한다.

전체는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막에서는 각 당의 정책이론설이 있고 2막은 6공화국의 청문회를 미리보고, 3막에선 미진한 사항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모의국회는 일선사업의 총화의 장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중사업의 모범이라 자신할 수 있다.

요즘은 변화의·전환기란 이름 하에서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행사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대중사업의 모범을 창출해내려는 정외과 모의국회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본 행사에서 심의, 연출, 부대장치, 조명 등의 실제적 부분과 대의선전 등에 참여하는 총인원은 약70명으로 심로 대중적 행사가 될 것이다.

이 열 재 (사회대 정외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김낙중 간접사건 분석기사 등 불거리다양

대학신문이란 일반적으로 학우들을 주대상으로하여 만들어진 학우들의 학우들을 위한 학우들에 의한 신문이 되지 않으니 어찌일까요. 즉, 학우들의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난호(1107호) 동대신문에서 내가 느낀 것은 한마디로 불거리가 많았다는 점이다. 요즘 학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선거연기라든지 간접사건으로 구속된 김낙중과 사건의 인기부의 존재위기와 관련지어 본 분석기사들은 대부분의 학우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분석해 눈길을 끌었

다. 또한 요즘은 저학년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취업문제에 대해서 현재 각기사람들의 채용현황등을 기획기사로 실은 점도 관심을 갖게했다. 앞으로도 계속 학우들의 관심을 반영해 나간다면 동대신문은 더이상 전지용이나 바다에 갈지라 걱정하고 읽히는 신문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 학우들의 참여가 지금보다 조금더 많아졌으면 하는 점이다.

이 연 수 (사법대 지교과)

###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말글사랑겨레 모임 공동대표 리 대 로 (농경 70층) 동문

에상농고시절 읽게 된 ‘양돈전서’가 일본어투로 쓰여져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당시 포기했던 대학에 진학하여 우리말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리대로(농경70층) 동문. 리동문은 20여년간 한글의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쓰지않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기성세대를 부끄러워하며 ‘국어운동대학회’를 만들어, 시제주어에 따라 민족의식이 부족해진 일부 지도층과 학생들에게 한글 전용의 중요성과 우리말을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진정한 애국임을 일깨웠다.

근년에는 ‘전국 국어운동대학회’를 만들어 국어사랑정신을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켜 ‘공문서·공공기관의 이를 한글전용으로 해야한다’는 제안을 해당부처에 제출하는 등 우리사회의 공공연한 한글정서풍조를 시정하는데 일고 있다.

대학원의 지각없는(?) 외국어사용에 대해 ‘우리말글이 외국어에 오염되면 민족정신도 오염된다’며 ‘말글사랑이(말글생활)에서의 주체성을 당부한다.

또, 리동문은 “한자혼용은 통일된 날에 남북말글의 어울림에 불필요한 요인이 됨으로 한글전용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말글에 대한 애정과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대학시절의 농촌체험과 우리말사랑의 투기처럼 길을 계속가리라는 ‘이대’로는 남은살이에서도 ‘우리말을 지키는 파수꾼’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鉉)

# 동문칼럼

강산이 변해도 두어 번은 변했을 만한 세월이 흘렀다. 선조와 안 파이란 잔디, 정리 된 정원이며 잔잔한 미소로 동학인을 끌어 실패는 자비의 입불상(立佛像), 별다른 것도 아니면서 떠들썩, 잡다한 회색을 다루어 풀어놓던 본관 앞의 때묻은 벤치, 거룩한 삼보의 언덕 위에 한 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 지겹게 들었던 학생회의 표기 이 모두가 이제 알뜰한 그리움이 되어 내 앞에 선연한 자태로 다가오고 있다. 동우담 주변의 아카시아 필연한 향기, 사색의 길을 거닐던 눈을 어지럽히던 다람쥐, 내담에도 무성하며 같이 전하던 꽃망울 그 여학생, 이따가 유난히 회고 아픈담던 이따가 중후음이 되어가겠구나. 그 낭만의 애음들을 돌아 도서판을 드

나들던 추억은 만금으로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보배로운 것이 되어있다. 자꾸그려다. 중간에 강의가 비는 어는 학기 화요일은 거의 거르지 않고 우린 뒷문을 통해 남산으로 향했다. 거기엔 조그만 풀이 있고, 평평한 돌이 있고, 파릇파릇한 풀이 있고, 알맞게 시원한 그늘이 있고, 적당히 따스한 햇빛이 있었다. 기대고 뻗고 앉고 제멋대로 지껄이며 웃고 웃기는 자잘한 이야기로 마냥 즐겁기만

했다. 거기엔 진짜 꿀같은 이야기 가 있었고, 꿈처럼 아름다운 젊음이 약동했고 꿈보다 아득한 또 하나의 꿈이 영원한 추억을 배태고 있었다. 그것이 어찌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거울이 되어 오를까지 내게 꿈을 잃지 않게한 원동력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동국문학

# “젊음의 가치는 땀으로써 보배로운 것”

의 밤에 얽힌 추억도 있을 수가 없다. 자칫해서 잃었을 때의 당혹과 아쉬이 짙어질까 하듯, 단학, 장안의 유수한 대학, 문학을 마음하는 학생들 앞에서 절절했던 뜨거운, 그러나 동국문학을 허술하게 보지 못했다는 자부심은 아직도 뿌듯하다. 물론 당시 우리 선배님들이 일궈놓은

반했을 때의 이야기며 실력을 상실하면 당장 오만과 허풍과 위선으로 전락하게되고 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신감 넘치는 패기의 동국인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빌고 바라는 맘이다.

결정적이지 않은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보도를 대할 때 가슴이 이리 설레는 나도 틀

# 홍진기

▲수교과 동아리 통소리를 아십니까? 요번 10월13일 우리들의 작은 정성으로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교과 92, H, T

▲월말이 살아있는 만큼 문학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문학하십시오. -동국 문화회 美貞

▲일문과 원어영국 ‘국경의 밤’을 10월 14일 5시 소강당에서 한대요. -10월3일 영남인 잔불기대회에 참가하는 ‘보리심’팀우님들 열심히 하세요. -베시시

▲수교 하셨습니다

▲일일 찾침 하느라 대·자·봉 여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취해 있지만 예쁘고 귀엽고 착한 대자보의 캠페인이다. -홍향진님, 가자신 M.T를 잘 치러려 귀영동이 관·경 92학번과 준수할때 수고했습니다. -웃었던 귀신일동

# 목욕골

- ▲축하합니다
  - ▲선부부의 지팡이 기둥이행이 근대입니다. 제대후 더욱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72기 후배일동
  - ▲태호오빠·성훈오빠의 제15대 우원단 단장·부단장직임을 축하해요. 날 잘들주세요. -백상16기 일동
  - ▲선우야 / 생10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문92 무녕
  - ▲K.C.C. 진흥이 성우이행 생일 축하해요. -29대
  - ▲지난 토요일 10월3일이 준수영이 귀백진 날이래요. 늦었지만 부지부지하게 축하해요. -다 좋은 열애는 열
  - ▲다영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모든 동인들은 London Boy의 형수님의 생신을 함께 축하해라. -92(?)
  - ▲늦었지만 나의 좋은 친구 병준의 생일을 하느라 명명만큼 축하해요. 곧 왕자님이 나타나길 빌며... -仁
  - ▲10월10일(쌍십절) 仙雨의 생일을 오빠가 축하해요. -오랑무탄
  - ▲10월4일, 생일을 맞이한 은숙이, 창채 축하한다. -윤리학과 혜원이라 대정이라
  - ▲영희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 시계 잘차고 다녀. -중
- ▲수교하셨습니다
  - ▲국문과 연극 ‘시민조각출’이 성공리에 끝나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S : 북히 오랑무탄 규태너서 수고했다. -92 雨
  - ▲우리의 D·U·C·A.에서 아주 큰 일을 했는데 많이 못 도와주고 또 많이 노력한 거에 비해 결과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네요. 수고하신 모든 분께 화이팅 /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전심으로 축하해요. -D·U·C·A의 새봄이
  - ▲10월8일은 MECS 13기 2번째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13기는 모두 모입니다. -13기 가장 승근
  - ▲학림준진 교육학과 연극이 10월7일 5시, 10월11일 3시, 두 번 공연을 갖습니다. 성공리에 마치고를 바라며... PS : 미옥이 언니 유진아 언니 / 애 쓰셨어요. -어원일자 및 주연
  - ▲동국인 여러분 / 10월5일부터 사법대축전입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가교과가 20주년을 맞게된 해 이기도 합니다. 오는 10월8일 목요일에 가교과주최 연극상연이 있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불 선화
- ▲산영공학과 빛돌이방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오름 비금빛
- ▲열심히 합니다
  - ▲태호, 성훈야 / 축하와 더불어 많이 수고할것을 당부할게. 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말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16기들에게도 큰 기대와 용기를 북돋우며... -백상15기 일동
  - ▲중합실기 발표회 때문에 노가 많으신 체교과 여러분 /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펄시다. -92학우 일동
  - ▲집체극은 끝났지만 풍물패, 노래패는 영원하다. 더욱 더 열심히 합시다. -일문 92
  - ▲자기 / 선거에서 꼭 이겨 / 열심히 해요. -혜원에게 기환이가
  - ▲그리고...
    - ▲경인선배 / 약속하신 것, 꼭 좀 지켜주세요. 좀 더 하루 속히 바랍니다. -만화일 여후배가
    - ▲동아리 연합회 회장 나 형은 (철학) 형님 / 동년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스철학연구회 회원일동
    - ▲‘신세계 변혁운동’의 기사이스크라 제3차 전체모임, 8일(목요일) 6시 학생회관 앞에서 모입니다. -92학번 이쁜 여학생

# 동학 광장

- ▲은방골
  - ▲축하합니다
    - ▲수교과 1학년 정희란 학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수 있길... -??머시마
    - ▲춘보야 / 동복희 전씨와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 축하하고 너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쁘디 디아블
    - ▲10월10일 민성이행의 생일일. 왜 태어났는지 아무도 축하해요. -도타택트 1271
    - ▲4일간 감기와의 눈물겨운 투쟁 끝에 살아 돌아온 이병민 방장님 축하합니다. -보현212호 방울일동
    - ▲92학번 친구 미성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해 / 가을은 친구마비의 계절 조심해. -같은과 친구 언, 은
    - ▲사랑스런 우리 112학군단 1년 차 중대장 이양호 후보생과 동기회장 류창우 후보생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112학군단 1년차 멋쟁이
    - ▲회계학과 3학년 마스코트 풍정 규선배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웃을 잃지 않는 선배님이 되시길 바래요. -92학번 이쁜 여학생

# 제 회 학내 사진전 공모

- 본사 여론대처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생한 동학의 모습을 직접 담은 사진을 공모합니다. 학내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진솔한 삶을 전할 수 있는 사진이면 됩니다.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자격은 단지 여러분이면 족하죠.
- ◇응모분야: 동학인의 삶이 담긴 것이면 모두(크기 상관 없음)
- ◇응모기간: 오는 17일까지 본사 여론대처부로 접수
- ◇시상내역: 으뜸상(칼라필름 20봉) 우수상(칼라필름 10봉) 가작(칼라필름 5봉)
- ◇발 표: 본지 1109호 (10월 21일자) 지상 발표











# 단과대 학생회 선거 본격 돌입

## 대부분 경선으로 치열한 선거전 이룰 듯

92학년도 재학생자치기구 임 후보자 등록이 지난 6일 오후 5시 마감된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별로는 선거전행이 활발해졌다.

이날 등록마감과 함께 각 후보 사무장들간의 시정세척 논의, 사전활동등의 일정을 치렀으며 법과대, 농과대, 예체대는 단체 사정을 입후보등록이 연기됐다.

△총대선위원회(위원장=이성원·정외4)는 지난 6일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5일 1차유세, 15, 16일 투표 실시한다.

△불교대 선위원회(위원장=최종현·진4)는 지난 6일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3일 1차유세, 15일에 2차유세를 각각 벌인다. 투표는 오는 20, 21일 양일간 실시한다.

△문과대 선위원회(위원장=조대영·국문3)는 지난 6일 등록을 마감, 오는 15일에 1차유세, 20일에 2차유세를 벌인다. 투표는 오는 21, 22일 양일간 실시한다.

△사범대 선위원회(위원장=이종신·국교4)는 지난 6일 등록 마감, 오는 21, 23일 양일간 1, 2차유세, 26, 27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예체대는 각과 졸업작품 출품과제로 11월로 선거가 잠정연기 결정됐다.

△아간강과 총학생회 선위원회(위원장=김동우·무역4)는 지난 6일 등록을 마감, 오는 13일 1차유세, 20일 2차유세를 실시한다. 투표는 21, 22일 양일간 이뤄진다.

성우·컴공4)는 지난 6일 등록을 마감, 오는 26일 1차유세, 28일 2차유세를 갖고 29, 30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 ◇총대 및 각단과대 회장 후보자 명단

구분	기호 1번	기호 2번
총대의원회	정주영(야간무4)	장기수(야간무3)
	최성곤(사외4)	김영식(경외3)
불교대	김장모(불교3)	
	남철수(선학3)	
문과대	임상락(국문3)	이영조(사학3)
	조지현(철학3)	정해원(국문3)
이과대	김태용(통계3)	김민규(화학3)
	박준용(화학2)	이화선(물리3)
사과대	이문환(사회3)	이재관(정의3)
	백승원(정의2)	박성식(행정2)
경상대	서장영(무역3)	윤기희(계3)
	윤기희(계3)	
공과대	박연식(전기3)	한철희(컴공3)
	김한준(컴공3)	김성기(토목2)
사범대	류치진(역교4)	김정훈(국교3)
	구경화(수교3)	박정호(역교2)
야간강좌	박정진(무역3)	한승우(경제4)
	이승필(경영2)	하동수(무역3)

## 경주총대 정기총회 열려

### 정주수미달로 안건의결 못해

경주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정연환·행외4) 정기총회가 지난 1일 시청각실(도서관 4층)에서 대의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칙개정 및 2학기 예산안 의결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의원 총 1백10명 중 45명만이 참석, 과반수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심의의 결여가 됐다.

이에 의장 정연환은 "회칙 개정은 오는 15일 대의원총회 총회에서 다시 상정할 것이며, 2학기 예산안은 총대위원회에

## 전산원 전시회 열려

본교 전산원 동아리연합회(회장=최주영·2)는 지난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해피관 6층 중앙홀에서 '제12회 프로그램 전시회'를 연다.

지난 9일 20일까지 출품작을 공모했던 이번 전시회는 본 전산원 교수심사를 거쳐 대상부터 6층 중앙홀에서 '제12회 프로그램 전시회'를 연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승승대 전산원과 본 전산원 동문회에서 각 2편씩의 작품을 출품해 본 전산원 학생들의 프로그램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했다.

## 제3대 신임 교수회장 이순용 교수 만나

### 생산적인 교수회활성화 사업주력

#### 3개 전문위원회 구성-침체 극복방안 강구



신규약은 대학의 자율성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89년, 정권은 오히려 '사립학교법' 제정으로 사회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의 학문·사상의 자유를 억눌렀고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과 '창의성'입니다. 이런 것들의 보장을 위해 교수회와 '교원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수회의 제도적 보장 및 올바른 위상은, = 본교 교수회의 특색은 타집단처럼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닌 '협의체 의결기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회원 주제들간의 총의가 모아졌을 때만 강력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회의 위상을 결정짓것쎄. 그러기 위해 교수회 나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87년 이후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여론이 높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87년 대선 당시 6공의 대

신규약은 대학의 자율성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89년, 정권은 오히려 '사립학교법' 제정으로 사회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의 학문·사상의 자유를 억눌렀고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과 '창의성'입니다. 이런 것들의 보장을 위해 교수회와 '교원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수회의 제도적 보장 및 올바른 위상은, = 본교 교수회의 특색은 타집단처럼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닌 '협의체 의결기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회원 주제들간의 총의가 모아졌을 때만 강력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회의 위상을 결정짓것쎄. 그러기 위해 교수회 나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87년 이후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여론이 높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87년 대선 당시 6공의 대

신규약은 대학의 자율성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89년, 정권은 오히려 '사립학교법' 제정으로 사회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의 학문·사상의 자유를 억눌렀고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과 '창의성'입니다. 이런 것들의 보장을 위해 교수회와 '교원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수회의 제도적 보장 및 올바른 위상은, = 본교 교수회의 특색은 타집단처럼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닌 '협의체 의결기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회원 주제들간의 총의가 모아졌을 때만 강력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회의 위상을 결정짓것쎄. 그러기 위해 교수회 나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87년 이후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여론이 높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87년 대선 당시 6공의 대

### 학복위 전자매장 개장

제8대 학생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자매장설치를 위한 업체입찰을 실시해 4개 용사업체 중 현주컴퓨터를 선정 지난 1일 개장했다.

지난 8월 복지매장 건설을 위한 보리수(다함평 2층) 내부 공사를 실시했던 학복위는 여건상 이의 준비정도가 미약해 전자매장 설치로 계획을 수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구부, 추계리3위

본교 아구부(감독=황동환)는 총1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2일부터 열린 92대학 아구추계리3위에 출전해 3위를 차지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대학의 준결승전에서 2대4로 패함으로 세 결승 진출이 좌절됐지만 4강 진출이라는 유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로써 이번대회를 모두 마

### 영원한(?) 발자취

○...오랜만에 도색을 했지만 워낙 오래되고 낡아진 건물이라 도색효과도 떨어지는 본교 도서관 벽에 발자국이 나타나...

지난달 25, 26일 양일간 도서관에서는 전관에 걸쳐 도색 작업을 했는데 자신의 발크기를 알아 보려는 심정에선지 벽으로 걸어나가면서 초능력(?)을 시험해보는 학생들이 폭발로 더럽힌 벽이 심히 보기에 좋지 않다.

이를 본 도서관 관 계자 왈 "모교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듯은 알겠지만 도서관 벽에까지 발자취를 남기는 발자 '달라'고 호소"

꼭두각시 MBC방송

○...그래서 새우등 더

### 모교에 대한 열과 성을 모아 영원한 발자국을 남겨라(?)

지는 건 국민들 뿐

MBC노조가 장기파업에 돌입해 대신을 귀찮은 현안이

은 지금, 시청자들은 불규칙한 방송운영에 난감해 하고있

다

공정방송하자는데 불발되

라고 간주하는 회사나, 발장구치며 물리적으로 사대를 수습

하려는 현정부나 '가짜는 게 편'이라는 속담처럼 반감을 사기에 안성맞춤

이에 한 MBC TV 시청자 한마디 "공정방송 하지는 않

간간하게 구는 윗분들 / 답답한 속사정을 담은 미니시리즈나 드라마편성도 생각해 볼지 하네요."

특강인(?)을 거듭함이 그것인데, 당황한 학생들은 학교당국에 실현실습비 사용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이에 실습도중 화가 난 한 학생 왈 "B급대학에서 F급실습기자제를 사용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등급은 과연 몇 등급인지 조속한 편지를 내려

## 사과대 능금제 사범대 학림축전 한창

### 생활문화운동 전개등 다양한 행사 펼쳐

사과대학생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능금제'를 등극을 비롯한 본교 일원에서 개최한다.

주요행사는 개막제, 본행사, 폐막제 등이며 학술제 기간에 영화, 학술 심포지엄, 체육대회, 바둑, 노래공연 등을 실시한다.

또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눈높이 영화제'를 기획 '레츠' '정복자 펠레' '에벤의 통곡' 등을 중국관 (L101)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5회 능금제에서는 폐식용유를 사용한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나눠주기, 폐휴지 모으기 등의 생활문화운동을 펼친다.

한편 사범대학생회는 '제7회 학림축전'을 지난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림관, 대운동장, 중앙강 등 학내 곳곳에서 벌인다.

이번 학림축전은 작년과 비교별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사범대 7개과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단대차원의 축전을 실시한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일 = 오후 5시 개막식, 오후 6시 학림가요제(중앙당) △6일 = 오후 5시 영화 '달린 교문을 열며' 상영, 오후 7시 역사교육과 연극(중앙당) △7일 = 오후 5시 교육학과 연극, 오후 7시 지리교육과 연극(중앙당) △8일 = 오후 5시 가정교육과 연극, 6시 국어교육과 연극(중앙당) △9일 = 경오 학림 체육대회(대운동장), 오후 6시 폐막식(중앙당, 대운동장)을 갖는다. 또한 학림축제기간중 다양한 전시행사도 이뤄진다. 참고교육사전, 남·북한 생활비교전을 비롯 각 과별 특성을 살린 전시회가 기획돼 있다.

한편 오늘(7일)부터 12일까지는 각과별 행사차 치러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림축전 일정은 12일까지 계속된다.

## 경주 총여 설문조사결과 발표

### '여성심리학' 강좌 개설 희망

경주캠퍼스 제8대 총여학생회(회장=정연주·수교4)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던 '여학생 관련 강좌설립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천5백여명의 설문지를 배포, 남학생 3백99장, 여학생 6백23장을 회수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 시기 본인 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여성문제는 남·여학생 모두 '성폭력'을 꼽았다. △김기보은 김진관 사원에 대해 여학생의 경우 '형량을 줄여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많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무죄여야 한다'는 대답이 다수를 나타냈다. △여성학 수강여부에 대해서는 남학생 13.5%, 여학생 18.2%만이 수강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만족도는 여학생이 60~70%, 남학생의 경우 50%로 집계됐다. △여성학을 수강하지 않은 이유는 남·여 모두 '타과목에 비해 흥미가 잘 되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많았다. △현재 타대학 개설 여성학관련 강좌 중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에 대해 남·여 모두 '여성 심리학'을 첫째로 꼽았다. △그

의 듣고 싶은 강좌로는 '여성사 사회진출', '여성의 노동', '여성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과소식**—

국어국문학과

오는 8일 김중수(중국 연변대학 조문학부) 교수의 초청강연회가 '중국 현대문학의 발전과정'이란 주제로 등극관 (L301)에서 열린다.

토목공학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대 Petrasovits교수의 '터미널과 고속철도의 관계'에 관한 강연회가 지난 1일 원흥관(F102)에서 관심있는 교수 및 대학원생, 학부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토목공학과 김상규교수의 동아시아 국가 순회강연회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외교학과

부활 8번째 맞는 대한민국 모의국회가 '대선'이란 주제로 오는 16일 중앙당에서 열린다.

# 꿈과 희망을 주는 한줄기 빛 되어

한한 빛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빛은 꿈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어둠을 가르는 한줄기 빛을 만드는 전기 -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 꿈과 희망이 있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한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